

# 「日本留學歌」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초국적 자아의 형성\*



백 순 철 (대구대학교)  
(urirangk4@daegu.ac.kr)

## 국문요약

「일본유학가」는 외교관이 일본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두 작품 「일동장유가」와 「티일본유람가」 이후 등장한 20세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앞선 두 작품의 작자가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유학가」의 작자는 유교 지식인의 정신적 우월감보다는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근대적 주체의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가 가속화되는 1904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일본을 보는 조선의 시선을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 글에서 「일본유학가」의 작자 윤정하의 유학 체험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깨닫고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일본의 식민교육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쉽게 동화되어 갈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살폈다. 더불어 일본의 유학생들이 겪는 갈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초국적 이동 경험의 긍정성(성장확장) 이면에 부정적 요소(불안과 순응) 또한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주제어 :** 일본유학가, 유학, 유학생, 식민교육, 초국적 이동, 초국적 자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275)

## I. 머리말

유학은 개인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마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과 경험은 개인의 의식과 사고를 자극하고, 새롭게 습득한 사상과 지식은 유학생 안에서 자기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의식을 형성한다. 유학생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을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한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경계를 확장하고, 확장된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민진경 외, 2018, 151). 이처럼 유학이나 이주와 같은 초국적 이동은 개별 주체의 세계 및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의식의 확장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초국적 이동이 자아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 초국적 이동의 과정에서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무력하고 불완전한 자아와 현실을 발견하고 세계의 위력에 순응하는 주체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구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유학 양상을 살펴 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해 일본으로의 유학생이 대거 증가하는데 이들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이 일본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들여와 반일과 항일의 방향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항일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을 주목할 수 있다. 조소앙(趙素昂, 1887~1958), 최남선(崔南善, 1890~1957), 최린(崔麟, 1878~?)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sup>1)</sup> 반면 실제 이 시기 일본 유학생 대부분은 긍정적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후에 식민지 조선총독부의 관료가 되어 적극적 친일을 하거나 군수나 기능적 지식인 등 소극적 친일에 기여함으로써 유학의 경험이 조선의 독립에 기여한 것이 미미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민진경 외, 2018, 152 ; 박찬승, 2009년 겨울호, 225~227).

1906년 윤정하(尹定夏, 1887~?)에 의해 창작된 「일본유학가」는 일본 유학 체험을 가사라는 갈래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 저자의 『유학실기』라는 한문 또는 국한문 실기류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 유학에서 겪는 당대 학생들의 고충과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정재호에 의해 진행되어 실기류와 함께 폭넓게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정재호, 1983). 김윤희는 정재호의 초기 성과를 이어받아 상세한 작품내용에 대한 분석과 가사의 문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윤희, 2012년). 또한 근대 사행가사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그 동질성과 차이성을 드러내는

1) 이 중 최남선과 최린은 나중에 변절하여 친일 문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데 주력하고 있다(김윤희, 2012ㄱ, 2012ㄴ, 2012ㄷ, 2012년 여름). 그리고 정보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한문 산문과의 차이성에 주목하여 인상적인 경험이나 정서적 반응을 진솔하게 드러낸 가사문학적 특질을 탐구한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정재호, 1983 ; 김윤희, 2012ㄷ ; 장정수, 2022).

앞의 성과들은 근대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의 가사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문학적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는 시간적 경계, 조선과 일본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간적 경계에서 변화하거나 흔들리는 근대 지식인들의 다양한 면모를 충분히 다루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유교적 관념이나 의식체계가 다소 열어지고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젊은 지식인들에게 유학이라는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로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국 체험의 성격과 경험 주체의 처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면서 선행 연구와 따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계미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은 1763년 8월 3일부터 1764년 7월 8일까지 약 1년 간의 일본 사행 체험을 한문 일기인 『동사록(東槎錄)』과 가사 「일동장유가」에 기록한 바 있다(하우봉, 2016). 또한 1902년에 완성된 「디일본유람가」<sup>2)</sup>는 조선 말엽 주차일본동경 조선공사관 대리공사를 지낸 바 있는 설정(雪汀) 이태직(李台植, 1859~1903)선생이 1895~1896년간의 약 1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지은 가사인데, 한문일기인 『범사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장정수, 2022). 이 두 사례의 경우 특징은 외국 상주 외교관이 그 나라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일본유학가」 이전 일본을 배경으로 한 국문 가사로는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와 「디일본유람가」 단 두 편뿐이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일본의 근대 문물에 주목하면서도 화이관(華夷觀)에 바탕한 도덕적 우월감, 반일 정서, 문화적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유는 적어도 두 작품의 작자는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역사와 정치적 형세를 자각한 지식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경계와 폄하적 시선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일본 문물에 대한 경탄적 시선은 일종의 여행자적 시선과 같은 것으로 근본적인 동경과 선망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윤정하(尹定夏, 1887~?)의 「일본유학가」는 이들과 달리 조선을 열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화이관 같은 정신적 우월감으로 무장된 지식인의 태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1904년 러일전쟁과 1차 한일협약 이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화되는

2) 이본으로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록(遊日錄)」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디일본유람가」와 비교해 볼 때 자구(字句)의 이동(異同)이 있을 뿐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가혹한 현실에서 젊은 유학생들은 오히려 신지식에 대한 열망과 함께 조선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유학을 절실히 감행하였다. 이 가사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신산스런 유학의 여정과 주체의 현실인식이 담겨 있다. 이들이 유학 체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초국적 자아의 성격 역시 그 점에서 주목된다.

작자의 삶은 크게 일본 유학 이전, 일본 유학 초기, 일본 유학 후기, 조선 귀국 이후 등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그 생활의 양상과 의식의 추이는 가사 작품을 통해 상당 부분 입체적으로 노출되기도 하고, 또 객관적 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초국적 자아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유학이라는 경험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형성하게 된, 매우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자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 유학 체험을 서술한 가사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초국적 자아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의식의 초점은 문학적 특질보다는 유학 체험이 경험 주체인 작자의 의식과 정체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데에 두고자 한다.

## Ⅱ.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작자 윤정하(尹定夏)의 유학 체험

가사 「일본유학가」의 구조는 전통적인 가사처럼 서사, 본사, 결사의 방식으로 구조를 분절하여 분석하기 쉽지 않다. 전체적인 내용이 유학 이전과 유학 이후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경험하는 사건과 의식의 변화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학 이전 : 남아로써 칭겨나서 ~ 칭각하니 무엇허리(1~36구)

유학 초기(동맹 휴학 이전) :

일본 입국 초기 : 고베(神戸)에서 은행 사무를 보다 동경으로 가다(37~64구)

일본 학교 입학 : 일본어 학습기를 거쳐 동경고등상업학교에 들어가다(65~100구)

관비생 유학기 : 보결로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관비유학생으로 들어가다(101~148구)

동맹휴학 계기 :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鞆雄) 교장이 호치신문(報知新聞)에 한인유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발표하다(149~178구)

동맹휴학 시작 : 37명의 학생이 맹문(盟文)을 짓고 동맹휴학에 돌입하다(179~208구)

유학 후기(동맹 휴학 이후) :

- 상업학교 재입학 : 중학교 퇴학 후 고등상업학교에 재입학하다(209~285구)
- 유학비 지원 중단 : 조선외교관들의 부당한 조치와 학생들의 대응(286~326구)
- 유학생 복교 포기 : 복교가 어려워진 상황을 받아들이다(327~366구)
- 유학 중단 고민 : 유학 중단 후 귀국 뒤의 할 일을 생각하다(367~428구)

이 장에서 분석되는 작품의 주요 내용들은 위의 내용 구조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재호(1983, 28~31)는 『留學實記』와 『毛山略史』에 나타난 작자 윤정하의 생애를 삶의 추이에 따라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외국어 공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세에 학부 학무국장 한창수의 소개로 한성관립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기도 하고, 24세에 사립중교의숙(私立中橋義塾) 영어과에 입학하였다가 5월에 사립낙연의숙(私立洛淵義塾) 일어과에 입학하기도 하였다(정재호, 1983, 29). 그가 영어와 일어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은 작품의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남자로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명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정재호, 1983, 50~51).<sup>3)</sup>

작자는 일본에 유학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은행에서 사무일을 했지만 공부할 여유가 없자 그만 두고 지인을 찾아가 함께 지내며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한 달만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

[1] 분연발정 동경도착 스고무친 별천지의, 아는스름 강씨일인 그녀관을 츠자가 니, 손잡고 반갑게인스 친형제가 더홀소냐, 동경관에 슈일류년 동탑동식 혼연후에, 외국와셔 공부컨딘 어학공부 제일급무, 강망여의 쇼기로서 녀관셔나 여렵에서, 일본스름 갖치잇서 풍속이며 말공부를, 아츰저녁 연습하고 낮이면 강습쇼에서, 독본습곤 다일그니 밤달나 물달나 혼말, 혼달만에 덕강통정 학교에 들고져 혼들, 학즈업셔 막가싱의 귀국받게 헐수업닌, 어리석고 썩 혼인싱 잇자하니 학비업고, 가자하니 남부그려 진퇴유곡 양난이라

(정재호, 1983, 50~51).

3) 남아로서 싱겨나서 세계중에 활동호야, 첫지의는 충군이국 들지에는 립신양명, 위딕스업 경영성취 남아된즈 의무로다, 디스업을 경영컨딘 학문업시 엇지호리, 우리나라 아즉미기 학문발달 불건이라, 문명학문 비라호면 세계중에 구미제국, 웃씀이오 제일이나 윤선길로 슈만여리, 멀기도오 멀거니와 각식물싸 고등호야, 여간직산 가지고는 가라히도 극난인즉, 무전즈로 싱의엇지 다시싱각 호야보니, 가직호고 편리호고 문명호고 부강호고, 학문발달 호는곳시 일본국이 저기잇네. 「일본유학가 제일」(정재호, 1983, 50). 작품 원문은 정재호의 논문에 소개된 「일본류학가 제일」을 인용하기로 한다.

작자인 윤정하(尹定夏, 1887~?)는 해남 윤씨 일사(一史) 주찬(柱瓚)의 장남으로 전남 강진 출신이다. 유학을 갈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행동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품 속에서 ‘불일발경(不日發程), 타국발정(他國發程), 분연발정(憤然發程)’ 등의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듯이, 신속한 결정과정,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동력 등을 짧은 단어 속에 함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친구 강씨의 추천으로 고베(神戸)의 대시라운행 사무로 가게 되는 결정 과정도 빠르지만, 막상 일이 힘들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자 한 달만에 그만 두는 결정 역시 빠르게 감행한다. 또한 작자는 문자를 많이 쓰기도 한다. ‘사반공배(事半功培), 유지사경성(有志事竟成), 무가내하(無可奈何)’ 등의 문자를 쓰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 뜻이 있으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굳게 고집하여 어찌할 수가 없다’ 등의 표현을 짧은 한자어로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을 보면 작자는 외국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학 공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습소에서 독본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동네 생활 속에서 언어습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한 달만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학비만 마련된다면 바로 학교에 진학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귀국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가 작자의 나이가 26~27세 때이다. 그러나 작자는 적극적이고 집요한 성격으로 관비생이 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동경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2] 관비싱을 도득코져 공스쵸씨 춤셔박씨, 밋일가져 쏴나보나 궂도업고 심도업셔, 이결흔들 무효로다 날날씩씩 울분홀췌, 한푼업시 빈손으로 몇달간을 스라운일, 친고덕턱 이아닌가 우환중에 춤과갓치, 돈업셔 고싱하면서 학교에는 들고시퍼, 전구박스 쇼기로서 동경고등 송업학교, 입학하니 깃부우나 무전이라 되로격적, 그럭저럭 혼달동안 텅기느라 헛던츠의, 춤셔박씨 하인보너 오라하기 가서보니, 관비싱의 리종송씨 친환잇셔 귀국헌디, 춤췌코져 입학시험 부럽제일 중학교셔, 시험하니 가보라기 빗비빗비 가서보니, 시험보난 칠인중에 천형만형 췌퍼시나, 도로올적 싱각흔즉 전문명식 단이다가, 중학교에 가즈하니 그역마음 신신치못, 그러나 이중학교에 입학을 안이할진저, 관비싱이 뿔슈읍셔 싱각다못 송업학교, 일시에 퇴학청원 중학교에 입학하고

(정재호, 1983, 51).

작자는 귀국보다는 관비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2]에 나오는 공사 조씨, 참사 박씨 등 외교관들을 찾아 다니며 방법을 구하다가 일단은 사비로 동경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한 것이다. 하지만 학비가 없는 처지는 그대로였는데 참사 박씨가 관비생이었던 이종상이 부모님 병환으로 귀국하게 되자 작자를 불러 시험을 보게 한다. 다행히도 함께 시험 본 7명 중 보결로 뽑히게 되었으나 중학교에 가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관비생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동경부립제일중학교<sup>4)</sup>에 들어가서 작자는 40명 정도의 동료 유학생들을 만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수업이나 기숙사 생활은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내하면서 공부한 것은 우리나라 독립기초를 공고히 하겠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지냈기에 가능했다.<sup>5)</sup> 그러나 학생들에게 더욱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3] 그러하나 이런고싱 춤고춤고 쏘춤어서, 다만학업 성취하면 제일이라 생각하야, 열심으로 공부하고 칠팔수를 지닌던니, 그역성역 부족으로 마가들고 익이와서, 작연섯달 초칭끼에 우리맛터 갈친스람, 중학교장 승포변용 무슨심장 니케서서, 세계공포 신문상에 츠음에는 국제관계, 우리학싱 장쳐단체 이틀연속 기지하고, 슛티에는 고등교육 할슈음다 발표하니, 이걸들고 불작성면 장니목적 간디읍니, 슬프도다 슬프도다 국제위키 불거업고, 스승조츠 퇴출하니 어디갈가 갈씨읍서, 저의심장 짐작하니 한일협약 되연후로, 얼마안된 우리학싱 교육조츠 제흔코져, 마음속에 푸문계교 신문송의 발표하니, 우리학싱 츠음싱각 오날일본 동양에서, 교육중심 되야 잇서 한국청국 인도섭라, 슈천학싱 각각파견 일본셔도 어셔어셔, 교육시켜 어둔나라 발달시켜 이웃날의, 동양평화 보전힘이 션진국의 의무인즉, 잊지하야 우리들만 불교 불혹 홀이잇나, 정부슈단 안인줄노 밋고밋고 심분미더, 승포흔져 고악타고 습십칠인 불승분격, 장니목적 달키위히 저중학교 퇴학하고, 다른학교 도입타가 여의치못 귀국 지경, 뫼지라도 복교등스 물론이라 뫼문직코, 일변으로 청원지여 공스의게 설명하고, 기숙스를 일제셔나 쇼금루로 왕겨와서, 우리들이 귀척췌며 침식츄립 제반등스,

4) 동경부립제일중학교는 현재는 히비야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1879년 창립된 명문중학교로 학생수 800명, 교사수 50명 규모의 큰 학교이다. 당시 한국의 황실유학생들을 위해 '특설한국위탁생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5) 기숙스에 드러가서 스십학싱 반계만나, 즈금이후 일체동고 여행약제 다정흔일, 학교에도 가치가고 기숙스도 갖치잇네, 죽더덕도 공부하야 졸업귀국 흔연후에, 우리나라 독립기초 공고확실 흔연후에, 썩썩셔로 권면하고 바람불고 비오난날, 일시라도 결석안코 학교가서 공부하며, 귀숙스셔 썩고흔일 일주간을 불작성면, 쓸밤세번 외출두번 죄인인들 더할쇼나, 먹고시분 것뫼먹고 즈고십푼 즈뫼즈고, 즈라먹으라 쯡쇼리 호로라도 십여번식, 귀가먹먹 정신스란 도로혀 공부에방히, 이것저것 고송흔일 기록즈면 한량업네(정재호, 1983, 51~52).

약쪼티로 굿히짓켜 일망동안 잇셔턴니(정재호, 1983, 52~53).

중학교에서 7, 8개월 정도 공부하고 지내던 중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일본인 학교장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靱雄)가 「호치신문(報知新聞)」(12월 2, 3일자)에 한인 유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3]을 보면 학교장이 주로 강조한 내용은 국제관계, 한인 유학생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적 한인 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포기 발표가 핵심이다. 사실 내용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 2차 한일협약인 1905년 을사늑약이 이미 체결되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학교장이 이러한 유학생들의 열패감을 더욱 자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4] 朝鮮人은 愈愈 日本統監擁護下에 在ᄃ야 立國ᄃ事와 未來의 富強을 可築ᄃᄃ 學生의 狀態의 如何와 留學生의 收容始末과 長所短所와 無氣力 不規則等說을 記載ᄃᄃ 고 將來 高等教育에 期望이 無ᄃᄃ 事를 特書大書ᄃᄃ얏더라.(정재호, 1983, 38, 재인용)<sup>6)</sup>

[4]를 보면 ‘愈愈(더더욱)’라는 표현을 써서 조선이 철저히 일본통감의 옹호하에 관할되는 보호국이 되었다는 점과, 나라가 다시 서고 미래의 부강을 든든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일본인의 시선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을 받아들여 일종의 검열을 통해 장단점을 가리고 무기력하고 불규칙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이 어려운 사항들을 특별히 크게 기록한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일본인의 태도와 시선에서 표현된 대목이다.

위의 [3]을 보면 유학생들의 처음 생각은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문명화된 선진국으로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변국인 한국, 청나라, 인도, 태국<sup>7)</sup> 등에서 수천 명의 유학생을 받아 교육시켜 어두운 나라를 발전시키고 동양평화를 보전하는 것이 일본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폭력적인 언론 발표를 듣고 학생들은 분격하여 전원 퇴학을 감행하게 된다. 조선의 식민지 현실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이용해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일본의 처사는 더욱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뜻을 모아 맹문(盟文)을 작성하고 전원 자퇴서를 제출한다.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가 더욱 수직적이고 위계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까지 일본의 제도속에 복속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6)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靱雄) 교장이 「한인유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호치신문(報知新聞)」 1906년 12월 2~3일자에 발표한 내용이다.

7) 섬라(暹羅)는 ‘타이’의 이전 명칭인 ‘시암’의 음역어이다.

사실 가즈우라 토모오(勝浦頼雄) 학교장처럼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항 이후로 한국을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부정적인 한국인상을 심어주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무쓰 무네타미쓰, 김승일, 1993 ; 한상일, 1993).<sup>8)</sup> 윤정하는 바로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이러한 식민지적 관점을 유학이라는 현실 체험에 이르러서야 깊이 통감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905년 12월 20일 공사 겸 유학생감독인 趙民熙(1859~1931)<sup>9)</sup>가 외무성과 교섭을 시도하게 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6권을 보면 1905년 12월 26일 한국의 林公使가 일본의 桂 大臣에 보낸 電文(541) 「한국 유학생 동맹휴학자 說諭復校 노력에 관한 건」에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 있다(국사편찬위원회편, 1997).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東京 桂 大臣

貴 信 機密 137호 한국 유학생의 동맹휴학에 관하여 學部大臣은 東京 유학생 감독에게 휴교자를 설유하여 復校시키는 데 힘쓰고 이에 추종하지 않는 자는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電訓하였음. 이에 대하여 그 쪽에서 이를 양지하신 위에 다시 설득을 받으 대다수는 복교하도록 진력을 해주기 바람. 또 第一中學校長의 열성과 각 교수들의 간절함에 대해 이 나라 정부는 충분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음.

[5]의 공사관 기록 전문 내용에서 특기할 것은 학생들의 집단 자퇴를 야기한 학교장과 학생들의 민원을 받고 있는 교수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요청을 전달하는 대신 사태를 외교적으로 수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학생들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일본 당국에서 다시 학교 입학이 허가되었지만 학생들은 약소국으로 일본의 보호국 처지가 된 조선의 현실을 깊이 자각하고 각성하게 된다.<sup>10)</sup> 오히려 각각

8) 김승일(1993)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의 외무대신 무쓰 무네타미쓰(陸奥宗光)가 국제간의 외교적 관계와 경험을 기록한 『건건록(蹇蹇錄)』을 번역 소개하였다. 한상일(1993)은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가 1883년부터 4년간 서울에 체류한 경험을 기록한 『한성지잔몽(漢城之殘夢)』(동경:춘양당, 1891), 일본공사 외교관 스키무라 후카시(杉村藩, 1848~1906)가 1894년 5월부터 1895년 10월까지 한국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재한고심록(在韓苦心錄)』(동경:용회사, 1932), 마이니치 신문 특과원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의 한국견문기인 『조선시사(朝鮮時事)』(동경:춘양당, 1894)를 번역 소개하였다.

9) 조민희(趙民熙, 1859~?)는 본관은 양주이고 대한제국기 시장원첨사, 궁내부특진관, 봉상사제조를 지낸 조병익의 아들이다. 그 역시 대한제국기 법무협관, 경남관찰사, 승녕부 총관 등을 지냈다.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타결되었다고 하고 각자 여관을 정하고 투숙하기도 하였다. 작자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고등상업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학부참여관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가 광무 10년(1906) 1월 조선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대신 명령으로 학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다.<sup>11)</sup> 학생들은 이후 답례대사로 일본에 온 완순군(完順君)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왕에게 주달하도록 하였다. 완순군 이재완(李載完, 1855~1922)<sup>12)</sup>은 자퇴 전말과 학생들의 청원을 감독인 한치유(韓致愈)를 통해 전달하고 학부에 전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감독 한치유가 학생 36인이 모두 중학교 재입학을 원한다고 학부에 거짓 전보를 한 것이다.<sup>13)</sup> 이후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학부와 완순군에게 알리게 된다. 그리고 입학할 원하는 학생은 11인, 불원 학생은 25인이라고 알린다.

[6] 습십육명 학싱중에 원입흔즈 열흐나라, 불원흔즈 이십오인 전보명오 흐여달나, 감독보고 말흐여도 죽기위한 불충이라, 혈슈읍서 불원즈만 학디의게 즉점으로, 감독전보 잘못되고 지금당긴 학교의서, 목적디로 열심공부 복교안키 결심이라, 전즈 디스 완순군게 천폐의게 주달흐여, 츠본결과 웃지되나 두곤디로 전보흐고, 학부의는 그잇튼날 쓰즈셰이 청원흐고, 귀국되면 귀국흐고 유학되면 류학코져, 양즈지간 잇슬줄노 학부츠분 바랏던니, 과연이월 이십스일 당일노은 학부전훈, 습십륙인 일월 이후 관비싱이 안뒀스즉, 학비금은 줄슈읍다 아췌거절 흐여신니, 승리흐고 어이음

- 
- 10) 감독레겸 공스췌씨 밤낫스르 외무성과, 다른학교 너달나고 교섭히도 불청이라, 혈슈읍서 공스흐고 갖치귀국 하하즈야, 공관가서 귀국준비 속장하기 총총이라, 외무성서 간간시위 자바간다 학비출중, 그러히도 우리학싱 원눈이나 깔지기리, 귀국준비 혼다말을 정말인가 싱각흐고, 혈슈읍서 목적디로 학교들게 허락나서, 당당디한 독입국이 덩치부피 인민쇠약, 일노흐야 외교권을 타인의게 허락흐고, 각국공스 쇼환되야 도공스도 갖튼경계, 디한신민 되야서는 뉘리안이 통곡홀니, 슌열슈열 슬픈쇼리 정거정이 변작상가, 서로손목 췌러좁고 영광여취 도라와서 혼좁즈고 다시싱각 걱정하면 무엇할이(정재호, 1983, 52~53)
- 11) 폐원탄씨 과연와서 광무십연 일월회일, 감독청에 학싱모여 불문곡직 흐는말이, 정부명영 듯지안코 마음디로 처스흐니, 학부디신 명녕으로 학비정지 혼다흐기, 우리들이 질문흐되 퇴학할씨 공관청원, 입학할씨 감독공문 이도역시 정부명령, 정부명녕 억웁단말 잘못싱각 디단모호, 학디명녕 말할진딘 학싱당췌 파견홀디, 즉명으로 파견흐고 황실비로 학즈주셔, 공부식킨 이학싱은 학부공문 엇슬진딘, 무가너흐 쇼환되되 다맛구전 전흐는말, 엇지우리 복종흐리 (정재호, 1983, 53).
- 12) 이재완은 대한제국기 종정원경, 궁내부대신, 승녕부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고종황제의 종제로 종친에 포함된다.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3) 속히귀정 흐여달나 말흐여도 저의감독, 관비싱일 들여다고 나모른다 거절τει, 멧칠지식 베란간에 학싱말도 듯지안코, 습십륙인 중학교에 다시들기 원흐다고, 학부전보 흐여다기 일제가서 질문흐니(정재호, 1983, 54).

다 쇼환명영 분명쿠나(정재호, 1983, 54).

[6]을 보면 원입자 11인, 불원자 25인인데 전보를 바로잡아 다시 조치를 요청했지만 감독인 한치유는 불원자 25인에 대해서만 조치한다. 또한 완순군이 왕에게 주달하여 학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06년 2월 24일 36인 전원 관비생의 자격을 상실하고 학비 지원은 중단되어 이제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설사 복교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처지에 이른 작자는 이 모든 문제가 교육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sup>14)</sup> 다만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頼雄) 학교장의 잘못 외에도 믿었던 정부 정책의 문제도 깨닫게 된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작자는 동양의 가장 친한 나라인 일본도 우리를 이렇게 괘시하는데 서양제국은 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sup>15)</sup> 작자는 뒤에 일본에 남아 동경고등상업 학교에 재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28세(1906) 때이다. 30세(1908) 때는 「상학계」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편집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신한민보에 기사로 남아 있어 주목을 요한다.(신한민보, 1909)

[7] 내일죽 동경 류학싱계를 살펴보건디 흑자 금시디 풍요를 살피지 못하고 다룬 구습에 젖은 사환목에 열광이 되어 정리 법률에만 뜻을 기우리고 그 실업에 주의하는 자 | 겨우 빅에 혼들 일뿐이니 엇지 기탄홀 바이 아니라 홀이 오 금에 나의 지극 혼 친구 윤명하군이 분연히 시세를 선각하고 상업학교에 투신해야 불원에 업을 맞치게 됨은 이의 하려하기를 말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윤군이 붓슬 들고 대성 질호하며 간곡 측단한 말로 상업 잡지를 발간하니 그 일흠은 상학계(商學界)라 신한지자 | 이 책을 들고 삼복 흥란해야왈 상학계는 비단 아한 경제계의 호시라 실로 우리 이천만 동포의 심명 직산을 보호하고 세계 대무대에 역기를 걸어 나아갈만한 팔불의 복이라하노라 (신한지자)

[7]은 「신한민보」 기자의 기사 내용으로 윤정하가 동경 유학생계에서 시대의 선각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업 잡지인 「상학계」 발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14) 다행 혼일 말할진전 류학싱을 파견목적, 문명국의 고등학문 속키속키 비워다가, 전국인민 교혹발달 식키조고 혼난일이, 교혹가를 잘못만나 일시퇴학 혼여난디, 퇴학후 후 여러달에 복교문제 다시나서, 들어가즈 못가게다 학싱들도 규각나고, 감독과도 송힐 혼중 쇼환전보 너도 혼니, 복교하기 원 혼즈도 복교하기 틀여시나, 가령복교 홀지라도 목적달기 극난이라, 목적달기 어려워진 복교 혼들 무엇하리(정재호, 1983, 54~55).

15) 동양제일 친한나라 우리관세 이갓거던, 덕욱서량 각국이야 인종문즈 부동이요, 서세동정 혼날에 원근지별 현슈 혼니, 서양인들 미들손야 서량제국 간다히도, 즈본읍셔 할슈읍고 이런싱각 저런싱각, 다 혼여도 속만답답 (정재호, 1983, 55).

있다. 다소 과장된 감은 없지 않지만 상업 잡지 발간이 매우 유의미한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비유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관비유학생으로 전환되었다가 사건에 휘말려 다시 자격을 잃고 사비유학생으로 유학 여정을 마무리하는 작자의 파란만장한 유학 체험은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작자인 윤정하는 31세(1909)에 상업학교 졸업 이후 귀국하여 1909년부터 한성상업회의소(漢城商業會議所)에서 창간한 『상공월보(商工月報)』의 편집을 담당하였고, 조선 말기의 민족지에 자주 투고하면서 한국상업계의 혁신을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현기봉(玄基奉)이 창립한 해동물산주식회사(海東物産株式會社)에서 취체역 및 감사역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현준호(玄俊鎬)가 호남은행을 설립할 때 서류작성을 전담하기도 하였다. 1909년부터 5년간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지배인 대리, 1910년부터 3년간 보성전문학교 강사 및 교수, 같은 해 중앙기독교청년회 상과 강사로 일했다. 1913년부터 5년간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배인, 43세인 1921년부터 7년간 연희전문학교 상과 강사 및 교수, 보성전문학교 강사, 49세(1927)에는 진주 일신여고보 교장, 54세(1930)에 계리사 개업, 56세(1934)에 조선광업신보사부사장 취임, 1938년부터는 계리사(計理士)로 회계사무에 종사했다. 『조선세무요람』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역서로 『경제학요의』가 있다.(정재호, 198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자 윤정하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며, 일본으로의 유학은 이러한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였다. 그는 유학 체험을 통해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냉정하게 깨닫기도 하였고,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매우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본 문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냉정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비판적 태도와 경계심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다소 복잡하고 신산스럽게 진행된 유학 체험이었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가이자 기업가,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폭넓게 갖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식민교육정책의 심화와 초국적 자아의 형성

구한말 유학생들은 유학의 체험을 통해 어떠한 발견과 탐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초국적 자아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유학의 교육 경험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제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식보다는 암묵적으로 꾸준히 형성되어 온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이

개별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일본유학가」의 서두와 결말 부분에서 주목되는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일본이 조선을, 조선이 일본을 친밀하게 인식하는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8] 우리나라 아즉미기 학문발달 불건이라, 문명학문 비라하면 세계중에 구미제국, 웃썸이오 제일이나 윤선길로 슈만여리, 멀기도오 멀거니와 각식물까 고등하야, 여간직산 가지고는 가라히도 극난인즉, 무전즈로 칭의엇지 다시싱각 하야보니, 가직하고 편리하고 문명하고 부강하고, 학문발달 하느곳시 일본국이 저기잇네, 일본국과 우리나라 밀접관계 더욱크며, 글도갓고 씨도갓고 풍속습관 디동쇼이, 구미원방 간것보다 문명학문 비울진디, 일본국이 더욱편리 엇지아니 스반공비, 건너가랴 십년경영 자본업서 그역극난, 밤낫스로 혼져싱각 싱각하니 무엇하리, ……(중략)……동양제일 친한나라 우리팔세 이갓거던, 덕옥서량 각국이야 인종문즈 부동이오, 서세동경 하느날에 원근지별 현슈하니, 서양인들 미들손야 서량제국 간다히도, 즈본읍서 할슈읍고 이런싱각 저런싱각, 다하여도 속만답답 세승만스 다치우고, 본토로나 도라가서 부모쳐즈 형제숙질, 한즈리서 반겨만나 그간일본 유학할써, 공칭훈말 깃부던말 일중설토 혼연후에, 탁쥬습비 취케먹고 세승만스 싱각말고, 초당춘슈 하거데면 일신칭에 제일인 듯(정재호, 1983, 50).

[8]에서 작품의 서두를 보면 작자가 생각하는 학문은 서구에서 발원한 신학문이기애 우리나라를 학문발달이 지체된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미제국은 선망과 동경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만, 유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일본은 일종의 아시아에서 서구열강의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한 국가로서 그 대체적 공간 표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가직하고 편리하고 문명하고 부강하고”하다는 점에서 근대적 문물의 발달이 구미제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토적 접근성과 함께 “글도갓고 씨도갓고”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서로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오히려 서구를 대체하여 일본이 비슷한 인종이자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최혜주, 1998, 50).

이러한 의식은 양국간의 혈통적 근친성을 강조함으로써 적대적 태도를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는 식민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데하라 다이러(幣原坦, 1870~1953)이다. 그는 1900년에 관립 경기중학교의 교사로 부임한 이후 1905년 2월에는 학부(學部)의 학정참여관으로 참여하여 학부대신의 교육정책을 돕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육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도 관여함으로써 일제의 식민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그는 1910년 동경제대 교수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구(琉球), 대만(臺灣), 남양(南洋)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주요 저술로는 『식민교육론』(동문관, 1912), 『세계소관』(보문관, 1912), 『만주관』(보문관, 1916), 『조선교육론』(육명관, 1919) 등이 있다. 1920년대 이후에도 다수의 저술을 통해 일본의 대동아공영론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최혜주, 1998, 47~48). 시데하라는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식민지의 기후·인종·종교·언어문제에 주목하였고 본국과의 동화(同化)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최혜주, 1998, 49~51). 시데하라는 또한 조선의 당쟁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를 한 학자이기도 하다(김경래, 2019).

「일본유학가」에는 이중 인종과 언어의 동질성을 통해 일본에 동화되어 가는 조선인들의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작자인 윤정하와 유학생들은 유학 이전이나 유학 초기에는 다소 호의적이고 기대에 가득한 심리였다면, 유학의 과정에서 일본의 교장과 교사, 교육 당국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현실과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일본 체험 이전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유학 체험이 누적될수록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초국적 자아의 중층적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구한말 유학의 양상은 시기별로 1기에서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881~1894년에 해당한다. 1881년 청으로의 영선사행과 조사시찰단의 수원 일부의 일본 유학, 1883년 보빙사 수행 후 미국에 유학한 유길준 등이 이에 속한다. 관비유학생이 대부분이며 미·일·청 등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2기는 1895~1904년에 해당한다. 이 때는 주로 일본으로의 관비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기는 1905~1910년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의 사비유학생이 대거 증가한다(민진경 외, 2018, 152 ; 박인화, 1982).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이후 1차 한일협약을 통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04년 4월에는 전쟁 중에도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결의하였다.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화하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이계형, 2021).

일제가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기간인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본 유학생이 대거 증가한 것 역시 식민교육 확대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대규모의 관비유학생 파견은 1904년 황실특과 유학생 50명, 1909년 학부 소관 관비유학생 78명 정도 외에는 없었고 대부분 사비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최덕수, 1991, 120).

1904년 황실유학생 50명의 유학, 대한제국 정부는 10월 11일자로 황실유학생에 대한 감독을 주일공사 조민희(趙民熙)에게 맡겼다. 그는 유학생들을 ‘한국황실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외무성에 위탁하였고, 외무성은 이를 다시 문부성에, 문부성은 이를 다시 동경부에 의뢰하여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특별속성과정(特別속성과정)을 만들어 한국 학생들을 입학시켰다고 한다(박찬승, 2009년 겨울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유학가」에 나타난 공사 조민희의 역할 역시 유학생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보다는 외교적 수습의 역할에 더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생들이 조국에서 파견된 외교 관료들이 후원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본 외무성이나 문부성의 정책을 대리하는 역할을 경험하면서 식민지 현실의 냉혹한 국제관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유학생들의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기에는 일제의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학생들의 개별적 욕구 및 의지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9] 유학생의 학과는 국어(일본어)를 주로 하고, 보통학과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3개년으로서 졸업 후에는 가능한 한 농공 상업 혹은 의학 방면으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리생활을 이상으로 하고 있던 유학생들은 위와 같은 지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수는 법률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교에서는 가능한 한 소정의 목적에 가깝게 가기 위해 수업의 여가가 있을 때마다 여러 공장의 참관, 기타 각 방면의 견학을 시켰다(阿部洋, 1974, 106~107)

[9]에서 유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본어를 주로 배우고 보통학과의 개요를 배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위해 기여할 인력을 기르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조선의 지도층 역할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의 목적에는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터득한 다양한 신학문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견인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관료나 기능적 지식인으로 충실하게 복무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일본유학가」의 윤정하와 함께 동경부립제일중학교에 유학했던 최린(崔麟, 1878~?)은 유학 도중 을사늑약의 비보를 접한 경험과 함께 당시 부립제일중학교장이었던 가츠우라 토모오(勝浦頼雄)가 신문에 발표한 내용 때문에 격분했던 과정을 기술한 바 있다.

[10] 이 해 11월 17일 학교로부터 돌아오는 길에서 신문 호외를 사서 본 즉, 천만 뜻밖에 한일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실려 있었다. ... 나는 그 호외를 손에 들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사생 동지들과 서로 붙들고 서천을 향하여 통곡하였다. 그

이튿날 호시신문 조간에 부립제일중학교장 가츠우라의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금후 조선 유학생들의 교육방침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는 담화가 게재되었다. 이것을 본 사생 일동은 극도로 분격하여 그 날 아침부터 등교를 거부하였다. 우리들의 동맹자퇴는 중대한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황실특파유학생이기 때문이었다(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1971).

문제가 된 기사는 「호치신문(報知新聞)」 1905년 12월 2, 3일자에 연재된 「한국유학생」이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교장이 한국유학생 위탁 1년간을 회고하면서 말한 소감을 기자가 정리한 것이었다. 유학생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입장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유학생들은 동맹 자퇴를 감행하고 관비유학생의 자격을 잃고 가까스로 학교에 복교하게 되지만 과정 자체는 다소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기사의 제목이 「일본류학가 제일」로 끝나고 있어서 후속편을 계속 창작할 의도가 작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후속 작품은 창작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이후 유학 생활은 이제 상상 속에서만 그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작품에 나타난 혈기왕성하고 의기 가득한 학생들이 귀국 이후의 삶 속에서 유학생들의 초기 주체적 의지를 꾸준히 관철해 갔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식민지 조선의 총독부 관료나 기능적 지식인의 역할에 머물렀던 것은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이 그들의 의식과 정서를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변화된 초국적 자아의 형성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IV. 맺음말

일본 유학 체험을 서술한 가사 「일본유학가」는 외국 상주 외교관이 일본의 풍속과 문물을 소개한 두 작품 「일동장유가」와 「디일본유람가」 이후 등장한 20세기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앞선 두 작품의 작자가 조선의 지식인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유학가」의 작자는 유교 지식인의 정신적 우월감보다는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근대적 주체의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가 가속화되는 1904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을 보는 일본의 시선과 일본을 보는 조선의 시선을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들이 유학 체험을 통해 확인한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그들의 이전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유학가」의 작자 윤정하의 유학 체험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국화되어 가는 식민지 한국의 초라한 위상을 깨닫고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동종동문(同種同文)’의식은 일본의 식민교육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 유학이라는 초국적 경험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쉽게 동화되어 갈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 되고 있음을 살폈다. 더불어 일본의 유학 정책이 유학생들의 의지나 목표와 충돌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초국적 경험의 긍정성 이면에 부정적 요소 또한 위험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초국적 이동이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초국적 자아의 모습은 때로는 성장과 확장으로, 때로는 불안과 순응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유학 이전 작자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소 호의적이고 기대에 가득한 심리였다면, 유학의 과정에서 일본의 교장과 교사, 교육 당국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좀 더 비분강개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유학생들의 삶과 의식에서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초국적 자아의 성격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파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과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사편찬위원회편. 199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26.
-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김승일. 1993. 건건록.
- 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1971. 如菴文集 上.
- 윤정하. 모산약사
- 윤정하. 유학실기
- 신한민보. 1909.04.28. 商業을 崇拜할 理由(상학계 조등)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상일. 1993. 서울에 남겨둔 꿈-19세기말 일본인이 본 조선.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윤희. 2012ㄱ. 1920년대 일본 시찰단원의 가사 「동유감흥록(東遊感興錄)」의 문학적 특질,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 김윤희. 2012년 여름. 1920年代 歌辭 「東遊感興錄」內 朝鮮人 ‘身世打令’의 특질과 그 의미. 어문연구 4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윤희. 2012나. 20세기 초 대일 기행가사와 동경 표상의 변모-「유일록」, 「동유감흥록」을 중심으로. 동방학 24. 동방학회.
- 김윤희. 2012다. 20세기 초 외국 기행가사의 세계인식과 문학사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36, 우리문화회.
- 김윤희. 2012르. 「일본유학가」에 형상화된 유학 체험과 가사문학적 특질, 한민족문화연구 40, 한민족문화학회.
- 김경래. 2019. 시대하라 다이라(幣原坦)의 『韓國政爭志』와 조선시대 정치사. 한국문화 85. 서울대규장각한국문화연구원.
- 민진경·우현정·박영미·최광만. 2018. 구한말(1876년~1910년) 유학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검토. 교육연구논총 39. 한국교육사학회.
- 박찬승. 2009년 겨울호. 1904년 황실 파견 도일유학생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 阿部洋. 1974. 旧韓末の 日本留學-資料的考察 II~III, 韓 3권 6호~7호.

- 이계형. 2008.12. 1904~1910년 대한제국 관비 일본유학생의 성격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계형. 2021. 일제의 대한 '보호국화' 추진과 학정참여관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교육 정책. 승실사학 46. 승실사학회.
- 장정수. 2022. 「디일본유람가」와 「범사록(泛槎錄)」의 내용 및 작가 의식 비교. 한국어문교육 4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정재호. 1983. 일본유학가고-유학실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 최덕수. 1991. 구한말 일본유학과 친일세력의 형성, 역사비평 17호(1991년 겨울호). 역사비평사.
- 최혜주. 1998.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 경영론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60. 역사학회.
- 하우봉. 2016. 재미통신사행의 문화교류 양상과 특징.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 투고일: 2023.02.01. ● 심사일: 2023.02.03. ● 게재확정일: 2023.02.20.

## | Abstract |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self in the 『IlBonYuHakGa』

Paik Sunchul (Daegu University)

『IlBonYuHakGa』 is important in that it is a work of the 20th century that appeared after the two works, 『IldongJangyuga』 and 『Daeilbonyuramga』, in which a diplomat introduced Japanese customs and culture. In addition, while the authors of the previous two works show Joseon's intellectual attitude. But the author of 『IlBonYuHakGa』 shows the consciousness of a modern subject with aspirations for the Western thoughts rather than the mental superiority of Confucian intellectuals. In addition, it is an interesting work in that you can discover the Japanese gaze of Joseon and the Joseon's gaze of Japan in the period from 1904 to 1910 when Joseon's colonization was accelerating.

In this article, through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by Yoon-Jeongha, the author of 『IlBonYuHakGa』, I focused on discovering Japan's imperialist gaze on Joseon after realizing the humble status of Korea, a colony that was becoming a protectorate of Japan.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the consciousness of 'same race and same character' shown in the work is deeply related to Japan's colonial education policy, and serves as a psychological basis for lowering the boundaries of the transnational experience of studying in Japan and being easily assimilat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flict process experien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negative factors (anxiety and adaptation) were also located behind the positivity (growth and expansion) of the transnational movement experience.

〈Key words〉 『IlBonYuHakGa』,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 students, Colonial educ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self